



Amy WineHouse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살면서 대중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이 타투로 온 몸이 뒤덮히고 들어올린 흑발머리의 여성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단 두 장의 앨범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천재 아티스트였으나 2011년 27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생전 뛰어난 음악 못지않게 파격적인 행동과 기행, 마약과 음주 문제 등으로 유명했으며 사망원인 역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밝혀졌다.

천재는 27살에 죽는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아티스트이다.

사후 신이 질투한 천재 뮤지션으로도 불린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전세계적 성공은 이후 비슷한 컨셉의 영국 출신 소울 아티스트인 아델과 더퍼 등이 세계적인 기반을 닦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장되었던 50~60년대 모타운 사운드(흑인 소울의 낭만주의 재즈 사운드)가 에이미를 통해 부활하면서, 팝 음악의 판도도 변하게 되었다. 아델로 대표되는 포스트 와인하우스 제네레이션이 팝 차트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다.

생전 발표한 앨범이 단 두 장 뿐이며 전세계적 성공을 얻었던 것은 2집 "Back To Black"이므로 그 앨범의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집 "Frank" 는 다양한 장르가 하이브리드된 재즈 앨범이었으며, 2집에서 본격적으로 60~70년대, 혹은 그 이전의 고전 소울을 기반으로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 재즈, 댄스(Funk) 그리고 힙합 등을 섞은 음악을 추구했다.

60년대의 소울을 현대에 복원하되,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를 퓨전하고 에이미 와인하우스만의 독특한 음악관을 더한 것.

직설적인 가사 역시 그녀 음악의 예술 중 하나. 특히 특유의 자기비하적이고 자조적인 가사를 두고 평론가들은 '소울 음악과 힙합 가사의 결합'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싱어송라이터답게 보컬에도 매우 뛰어났다.

흔치 않은 콘트라alto(Contralto)음역의 걸쭉한 목소리와 리듬감 등 누구라도 들으면 한 번에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허스키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주지하듯 기본적으로는 재즈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재즈 보컬 특유의 트레몰로와 같은 기교가 소울 보컬 형식에 묘하게 섞여 있다.

라이브에서는 술과 마약에 취해 풀린 눈으로 비틀거리면서도 칼음정을 놓치지 않았던 천재.

힙합,재즈,블루스,록 펑크를 자신만의 현대적인 소울 보컬로 재해석해 다시 대중으로 끌어들이 팝이 된 (팝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천재적인 음악성과 후대의 에이미와 비슷한 컨셉의 소울 보컬리스트들에게 지평선을 제시했다.



Bob Marley

밥 말리는 자메이카 출신 음악가이며 제3세계 음악인 레게장르를 전세계적으로 저변 확대시킨 거장이자 역대 최고의 레게 스타로 불린다. 영국군 장교였던 중년의 백인 아버지 노벌 싱클레어 말리와 10대 흑인 어머니 세텔라 맥컴 부커사이에서 자메이카 트렌치타운의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밥 말리는 버니 웨일러, 피터 토시와 함께 16세에 가수로서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962년에 그는 Wailing Rudeboys로 알려진 Teenagers와 함께 첫번째 음반인 "Judge Not"을 발표했다. 이후, 팀명으로 웨일러스(Wailers)를 채택하고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평범하지 않은 곡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어 자메이카에 서서히 퍼지고 있던 'SKA'비트 음악을 시도했고, 그래서 "rude boy music"으로 불리기도 했다. 1966년에 밥 말리는 리타 앤더슨과 결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가 자메이카로 돌아온다.

이 때 자메이카에서 급속히 성장한 라스타파리아니즘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SKA, Rude Boy music과 더욱 발전한 형태인 "rock steady"로 그의 곡들은 더욱 같고 다듬어졌다. 그러나 1973년 이전까지는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가 Island Record에서 그의 첫 음반을 만들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Stir It Up"과 Peter Tosh의 "Stop That Train"이 포함된 "Catch a Fire"를 발표하여 전세계인들에게 처음으로 레게를 소개하게 되었다.

1974년 웨일러스 멤버와 결별하고 I-Threes를 조직한 후, 발표되자마자 레게의 클래식이 돼버린 "No Woman, No Cry"와 "Lively Up Yourself"가 수록된 아주 뛰어난 명반, "Natty Dread"를 발표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Strictly Business라는 넘버가 EPMD에 의해 발표되기도 하였고, 이 노래의 가사는 나는 전설이다 2007년판 영화에서도 가끔 언급된다.

70년대 말, 밥 말리는 "Rastaman Vibrations"와 "Exodus"가 미국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을 때 또한 "Exodus", "Waiting in Vain", "Jamming" 그리고 "Is This Love"등 전세계적으로 히트한 트랙을 갖게 되었다. 1977년 말리와 웨일러스(Marley and Wailers)의 유럽투어 때 프랑스 기자들과 함께 축구시합을 했다.경기중에 그는 발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몸에 있던 암세포를 발견했다. 암 치료를 거부한 그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을 투어 했다. 뉴욕에서의 공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황을 담은 "Babylon by Bus"를 발매했고, 뉴욕 공연은 레게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라이브 공연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해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평화를 위한 콘서트와 보스턴에서 흑인 자유투사를 위한 자선 공연을 가졌다. 그러나 무리한 투어 일정은 그의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었다. 말리는 음악 활동 후반에 노래를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표하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1978년 4월 22일 하일레 셀라시에 1세의 자메이카 방문 12주년 기념 콘서트로 'One Love Peace Concert'를 열었는데, 이 콘서트의 마지막에 말리는 당시 자메이카의 총리였던 마이클 맨리(국민국가당)와 에드워드 시가 노동당 총재와 삼자 악수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자메이카 정계는 정치깡패들이 정적에게 거리낌없이 총을 갈겨대고 심지어 그 정도가 내전에 가까웠대던 시절인데다 말리가 공연하던 때에 자메이카 총선이 얼마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던 말리의 뜻이 공연에 그대로 표출됐던 셈. 이후 1979년 "Survival"을 통해서 이전과 달리 그의 정치적인 색채를 공격적으로 표현했다.

1980년 다시 투어에 나선 그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조깅하다가 쓰러졌다. 암은 그의 뇌와 폐 그리고 심장에까지 퍼져 있었고 8달 후 사망했다.



Diana Krall

재즈 장르가 전체 대중음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매년 발표되는 뮤지션 수입 순위에서 상위권은 대부분 팝, 소울, 힙합 뮤지션들이 차지하며, 재즈 뮤지션의 이름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드물게 재즈와 팝의 경계를 오가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아티스트도 있다. 7천 5백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여 팝 스타에 버금가는 인기를 차지한 케니 지(Kenny G)가 있었고, 그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만 다이애나 크롤(Diana Krall)이 2천 1백만 장을 판매하여 재즈 뮤지션 중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근소한 차이지만, 팻 매스니의 기록(2천만 장)보다도 앞서니 다이애나 크롤이 얼마나 성공한 재즈 뮤지션인지를 알 수 있다.

1999년에 처음으로 내한한 다이애나 크롤(Diana Krall)이 공연 도중 관객을 향해서 자신의 고향 나나이모(Nanaimo)를 가본 사람이 있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는 고향은 캐나다 북서부에 위치한 밴쿠버섬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다.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조용하고 아름답다. 다이애나 크롤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명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도심에 자리한 한 쇼핑몰이 이름을 '다이애나 크롤 플라자(Diana Krall Plaza)'로 바꾸었을 정도다. 이 도시 사람들의 재즈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져 지난해 이곳에선 처음으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했다.

교사였던 아버지는 수많은 음반을 소장한 열렬한 재즈 애호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딸 다이애나 크롤이 네 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재즈를 듣고 자란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엘튼 존, 밥 딜런, 빌리 조엘의 음악에 심취하며 재즈와 팝 음악 모두에 열광했다. 감성이 풍부했던 그는 우디 앨런의 로맨틱 영화 팬이기도 했다. 다이애나 크롤은 열다섯이 되던 해부터 나나이모의 레스토랑과 클럽에서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며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장학금을 받으며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다이애나 크롤은 고향으로 돌아와 클럽에서 재즈 트리오 연주를 시작했다. 우연히 클럽을 찾은 재즈 레전드 레이 브라운(Ray Brown)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미 라울즈(Jimmy Rowles)에게 소개했다. 지미 라울즈는 사라 본, 카르멘 맥레이, 엘라 피츠제럴드와 함께 일하며 여성 재즈 싱어와의 콜라보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크롤을 로스앤젤레스로 불러 3년간 함께 연주했고, 이 시간 동안 다이애나 크롤은 지미 라울즈의 조언을 들으며 가창력을 키웠다. 이어 그는 팝/재즈 크로스오버 스타메이커로 유명한 토미 리푸마(Tommy Lipuma)를 만나게 된다. 1950년대 재즈 색소폰 연주자였던 리푸마는 조지 벤슨, 나탈리 콜과 같은 재즈 아티스트를 인기 스타로 만든 유명 프로듀서였다. 자그마한 항구도시의 수줍음 많던 피아니스트는, 명 프로듀서들을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만나면서 연주와 가창력을 갈고닦게 되고,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다.

다이애나 크롤은 세 번째 앨범 <All for You: A Dedication to the Nat King Cole Trio>(1996)이 뜨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When I Look in Your Eyes>(1999), <The Look of Love>(2001), <Live in Paris>(2002)이 연이어 그래미상을 받으며 스타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When I Look in Your Eyes>는 재즈 음반 최초로 그래미 'Album of the Year' 후보로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다이애나 크롤은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재즈차트 1위에 올렸고, 그래미 5회 수상과 함께 세계적으로 2천 1백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 재즈 아티스트가 되었다.

2003년에는 영국 서리얼(Surreal)에 있는 엘튼 존의 성에서 록스타 엘비스 코스텔로(Elvis Costello)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발표를 하며 화제가 되었다. 결혼식에는 폴 매카트니를 비롯한 150여 명의 하객만 초대되었다. 엘비스 코스텔로는 영화 <노팅 힐>의 주제곡 'She'를 부른 영국의 정상급 싱어송라이터. 두 사람이 맺어진 데는 엘튼 존이 중개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마련한 자리에서 함께 노래하다가 비스듬히 의자에 기댄 엘비스 코스텔로가 무대에서 떨어지며 급격히 친해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쌍둥이 남자아이 둘을 키우며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다. 다이애나 크롤은 수년 전 급성 폐렴으로 음악 활동을 잠시 중단했고, 지난해에는 20여 년을 함께 한 프로듀서 토미 리푸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딛고 13번째 앨범 <Turn Up the Quiet>(2017)을 발표하며 공연 투어를 재개했다.

데뷔 초에는 몇 보수 재즈 팬들이 그를 아니꼽게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다이애나 크롤은 타고난 매력과 잇따른 인복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쌓은 실력을 더하며 마침내 재즈 신 최정상에 올랐다